No. 23 경제 전망·정책 읽는 시간 14분

2027년 경제 전망, JP모건은 낙관하고 연준은 조이고 버크셔는 현금을 쥔 이유는?

2026년 가을에 나온 전망과 결정을 여덟 목소리로 나눠 원문 숫자로 비교합니다. 성장에 거는 JP모건 자산운용과 골드만삭스, 물가와 싸우는 연준과 한국은행, 위험을 알리는 IMF와 제이미 다이먼, 값을 따지는 뱅가드와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전망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는 기간과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임. 모두 채권 수익률 5%대와 AI 투자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고, 미국 주식의 10년 수익률(JP모건 7.5%, 뱅가드 4.8~6.8%)에서 가장 크게 갈림

확인할 숫자

전망이 보는 기간, 미국 주식·채권 기대수익률, 연준 금리 전망, 근원물가, 기업 이익률, AI 설비투자



사진: 눈 내린 밤 성탄 트리와 조명으로 밝힌 뉴욕증권거래소, Anthony Quintano, Wikimedia Commons.

목차

1. 같은 경제를 보는데 전망은 왜 이렇게 다를까?
2. 성장에 거는 쪽: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무엇을 근거로 낙관할까?
3. 물가와 싸우는 쪽: 연준과 한국은행은 무엇을 결정했을까?
4. 위험을 알리는 쪽: IMF와 제이미 다이먼은 무엇을 걱정할까?
5. 값을 따지는 쪽: 뱅가드와 버크셔는 왜 조심스러울까?
6. 가장 크게 갈리는 숫자: 미국 주식 10년 수익률은 7.5%일까, 5.8%일까?
7. 그래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8. 10월 시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
9.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10. 전망 보고서를 읽을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 이 글은 각 기관이 공개한 전망과 결정을 정리해 비교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매도 권유, 수익률 예측이 아닙니다. 기대수익률은 각 기관의 가정이며 보장된 값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복리 계산은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가을은 전망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JP모건은 「앞으로 10~15년」을,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을, 연준은 「다음 회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경제를 보는데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누구는 낙관하고, 누구는 금리를 올리고, 누구는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여덟 목소리를 골라 원문의 숫자를 읽고,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겹치는지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01

같은 경제를 보는데 전망은 왜 이렇게 다를까?

고른 기준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인가」입니다. 돈을 굴리거나 투자 전략을 내는 곳으로 JP모건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를 골랐습니다. 금리를 정하는 곳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을, 세계 경제를 감시하는 곳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골랐습니다. 사람으로는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을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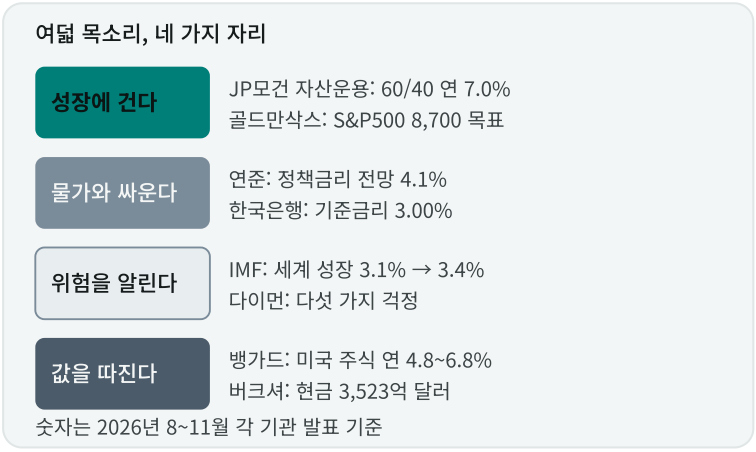


그림 1. 이 글에서 비교하는 여덟 목소리. 분류는 글쓴이가 정리한 것임.

전망이 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10년을 보는 곳과 다음 달을 보는 곳이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맡은 일이 다릅니다. 운용사는 수익을 찾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지키고, IMF는 위험을 알립니다. 셋째, 답하려는 질문이 다릅니다. 수익률을 묻는 곳과 물가를 묻는 곳은 같은 경제에서 다른 답을 꺼냅니다.



로고: 이 글이 전망을 비교하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각 사의 상표이며 회사를 가리키는 데에만 쓰고 후원이나 보증을 뜻하지 않음. Wikimedia Commons.

02

성장에 거는 쪽: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무엇을 근거로 낙관할까?

JP모건 자산운용은 10월 19일 「2027 장기자본시장가정」을 냈습니다. 앞으로 10~15년의 자산별 연평균 수익률을 가정한 보고서로, 올해가 31번째입니다. 주식 60%와 채권 40%로 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연 7.0%로 제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미국 대형주는 작년 6.7%에서 7.5%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채권은 5.3%로 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2021년에는 2.1%였습니다. 선진국 주식 전망이 신흥국(7.1%)을 앞선 것은 이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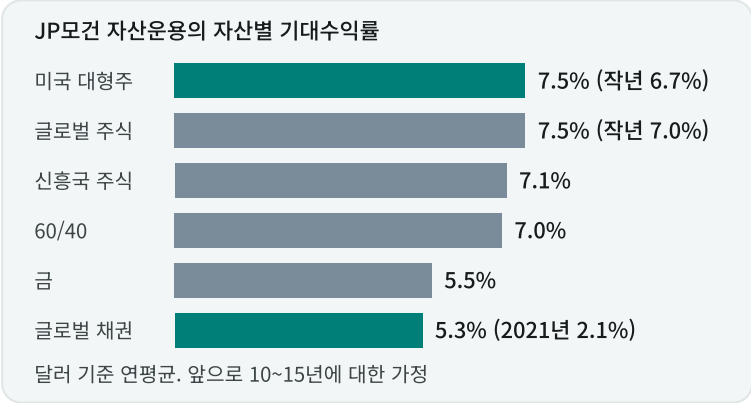


그림 2. 출처는 JP모건 자산운용 2027 장기자본시장가정 보도자료(2026.10.19).

근거는 생산성입니다. JP모건은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2040년까지 이어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이전 가정보다 50% 높은 연 1.2%로 끌어올린다고 봤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얼마나 더 만들어 내는지를 재는 값입니다. 미국의 장기 실질 성장률 전망도 2.1%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15%가 넘는 기업 이익률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전망에서 S&P500의 12개월 목표를 8,700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 시점의 지수보다 약 14% 높은 값입니다. 주당순이익은 2026년 375달러에서 2027년 415달러로 늘 것으로 봤습니다. 10.7% 증가입니다(직접 계산). 다만 AI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정점을 지나는 것을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익이 계속 는다는 전제입니다.



사진: 아래에서 올려다본 뉴욕 파크애비뉴 270번지의 JP모건체이스 새 본사, Kidfly182, Wikimedia Commons.

03

물가와 싸우는 쪽: 연준과 한국은행은 무엇을 결정했을까?

중앙은행은 전망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금리로 결정합니다. 연준은 9월 16일 정책금리를 3.75~4.00%로 올렸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회견에서 물가가 5년 넘게 목표를 웃돌았다며 물가 안정을 가장 앞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위원들의 전망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2026년 말 정책금리 전망의 가운데 값은 4.1%입니다. 6월에는 3.8%였습니다. 2027년 말도 4.1%로, 6월의 3.6%에서 올랐습니다. 석 달 사이에 「내년에는 내린다」가 「내년에도 그대로」로 바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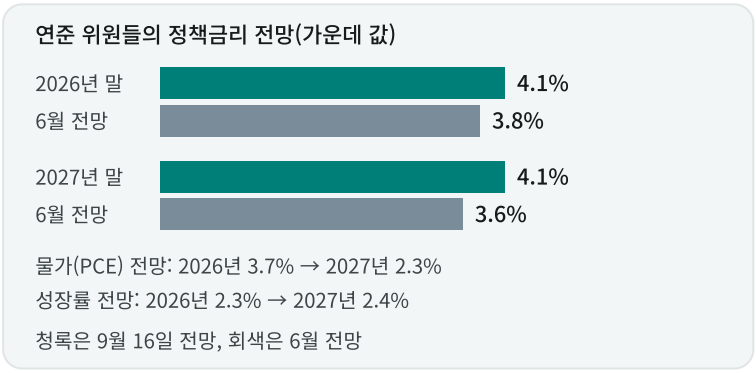


그림 3. 출처는 연준 경제전망 요약(2026.9.16). 지금 정책금리는 3.75~4.00%임.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장률은 2.3%에서 2.4%로, 실업률은 4.1%로 봅니다. 워시 의장은 10월 회견에서 생산성이 몇 해째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의 낙관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결론이 다릅니다. 경제가 탄탄하고 물가가 높으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8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올해 3.3%, 내년 2.9%로 봤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근거입니다. 물가는 올해 2.7%, 내년 2.3%이고, 근원물가는 두 해 모두 2.5%로 봤습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올려 3.00%입니다. 새 전망은 11월 26일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장을 좋게 보는 것과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같은 판단의 두 얼굴입니다.

04

위험을 알리는 쪽: IMF와 제이미 다이먼은 무엇을 걱정할까?

IMF는 10월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냈습니다.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4%로 봤습니다.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26년 4.7%에서 2027년 4.1%로 내려온다고 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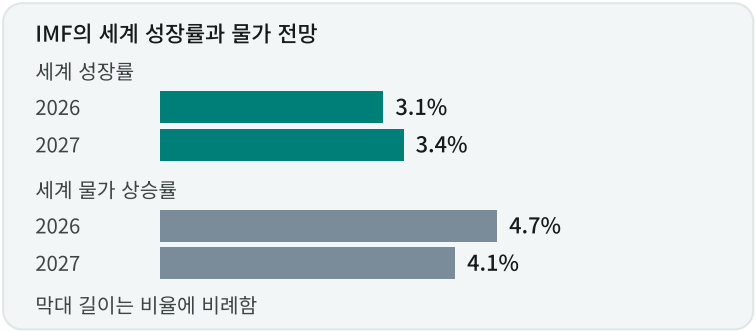


그림 4. 출처는 IMF 세계경제전망(2026.10.13) 요약.

하지만 IMF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단서에 있습니다. 위험이 아래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봤습니다. 꼽은 위험은 AI에 대한 기대가 다시 평가되는 것, 에너지 가격, 무역 갈등, 나라 살림의 취약함입니다. 반대로 AI 투자와 생산성이 예상보다 좋으면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AI가 위쪽 위험과 아래쪽 위험에 모두 올라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말도 같은 결입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그는 10월 13일 실적 발표에서 미국 경제가 기업 투자와 소비로 힘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섯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큰 재정적자, 끈질긴 물가, 높은 자산 가격, 오르는 금리, 지정학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회사 안의 온도 차이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10~15년을 낙관하고,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금의 위험을 말합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보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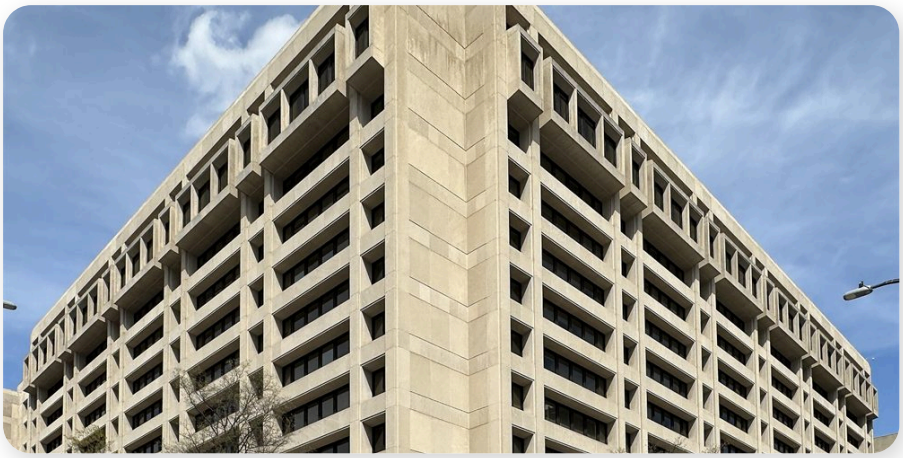


사진: 푸른 하늘 아래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 본부 건물, APK, Wikimedia Commons.

05

값을 따지는 쪽: 뱅가드와 버크셔는 왜 조심스러울까?

뱅가드도 JP모건 자산운용처럼 장기 수익률을 가정하지만 답이 다릅니다. 9월 말 기준 모형에서 미국 주식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4.8~6.8%로 봤습니다. 석 달 전의 4.2~6.2%보다는 올랐습니다. 미국 채권은 5.1~6.1%입니다. 뱅가드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비싸지만 3분기에 값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망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장부가 의견입니다. 9월 말 보험 등 주요 사업이 가진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는 3,523억 달러입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는 3,526억 달러입니다. 투자한 돈과 쥐고 있는 현금이 거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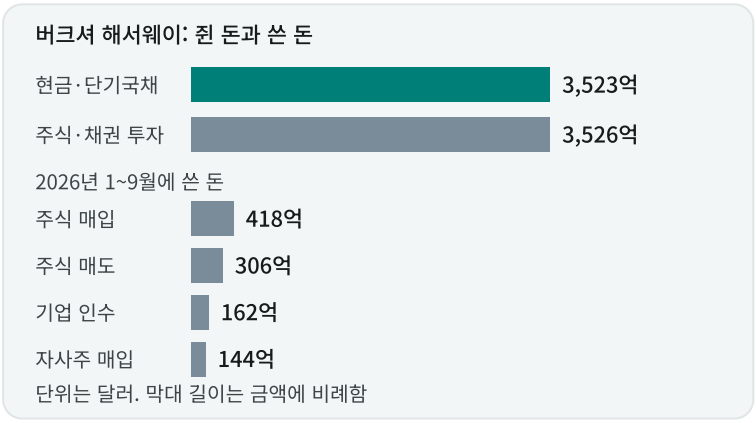


그림 5. 보유액은 2026년 9월 말, 쓴 돈은 1~9월 누계. 출처는 버크셔 해서웨이 2026년 3분기 보고서.

올해 버크셔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월에 주식을 418억 달러어치 사고 306억 달러어치 팔았습니다. 112억 달러 순매수입니다(직접 계산). 화학 회사와 주택 건설 회사를 합쳐 162억 달러에 인수했고, 자기 회사 주식을 144억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림 5에서 보듯 쥔 현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현금이 그냥 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3개월 국채 금리는 11월 13일 4.32%입니다. 3,523억 달러에 단순히 곱하면 한 해 이자가 약 152억 달러입니다(직접 계산).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기다리는 것도 값을 받습니다.

06

가장 크게 갈리는 숫자: 미국 주식 10년 수익률은 7.5%일까, 5.8%일까?

여덟 목소리가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미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입니다. JP모건은 연 7.5%, 뱅가드는 4.8~6.8%입니다. 뱅가드 범위의 가운데 값은 5.8%입니다(직접 계산). 1.7%p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는 큽니다. 1,000만 원을 10년 굴리면 연 7.5%에서는 2,061만 원, 연 5.8%에서는 1,757만 원이 됩니다. 304만 원 차이입니다(가상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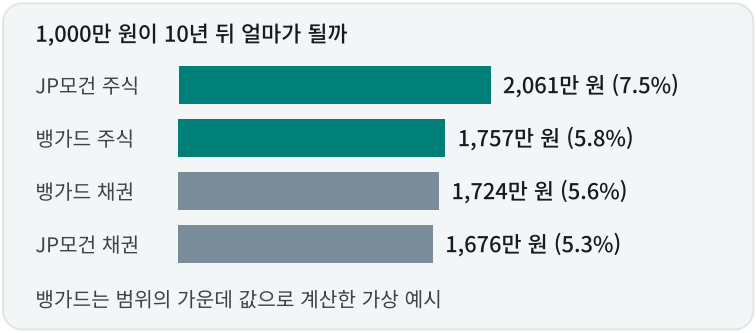


그림 6. 각 기관의 가정을 복리로 계산한 값(직접 계산). JP모건은 10~15년, 뱅가드는 10년 가정이고 JP모건 채권은 글로벌 채권, 뱅가드 채권은 미국 채권 기준임.

왜 갈릴까요? JP모건은 이익에 무게를 둡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리고 15%가 넘는 이익률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뱅가드는 값에 무게를 둡니다. 지금 주가가 이익에 비해 비싸면 앞으로의 수익률이 깎인다고 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의 높은 이익률이 10년 동안 유지되는가입니다.

그림 6에는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간격입니다. JP모건의 가정에서는 2.2%p이고, 뱅가드의 가운데 값으로는 0.2%p입니다(직접 계산, 채권 기준이 서로 다름). 뱅가드의 눈으로 보면 주식의 위험을 지는 대가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두 전망이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다.

07

그래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갈리는 곳만 보면 길을 잃습니다. 겹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채권의 수익률이 5%대로 돌아왔습니다. JP모건은 5.3%, 뱅가드는 5.1~6.1%를 말합니다. 시장의 미국 10년물 금리도 11월 13일 5.15%입니다. 낙관하는 쪽과 조심하는 쪽이 같은 숫자를 말하는 드문 대목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른 까닭은 국채 금리 5% 시대 글에서 다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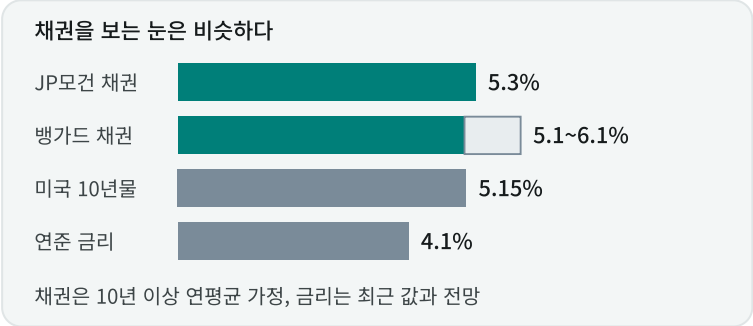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10년물은 2026년 11월 13일 금리, 연준 금리는 2026~2027년 말 전망의 가운데 값임.

둘째, AI 투자가 성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JP모건은 생산성의 근거로, 골드만삭스는 이익의 근거로, IMF는 위쪽과 아래쪽 위험 모두로 AI를 듭니다. 빅테크 네 회사가 3분기에만 설비투자에 2,019억 달러를 쓴 사실은 빅테크 AI 설비투자 글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걱정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셋째, 물가와 금리가 예전보다 높고 더 흔들립니다. 연준은 금리를 4.1%로 유지한다고 보고, IMF는 세계 물가를 4%대로 봅니다. JP모건도 물가 변동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08

10월 시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

전망이 나온 바로 그달, 시장이 먼저 답을 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10월 시장 리뷰에 따르면 세계 주식은 달러 기준 1.6% 내렸습니다. 속을 보면 더 크게 갈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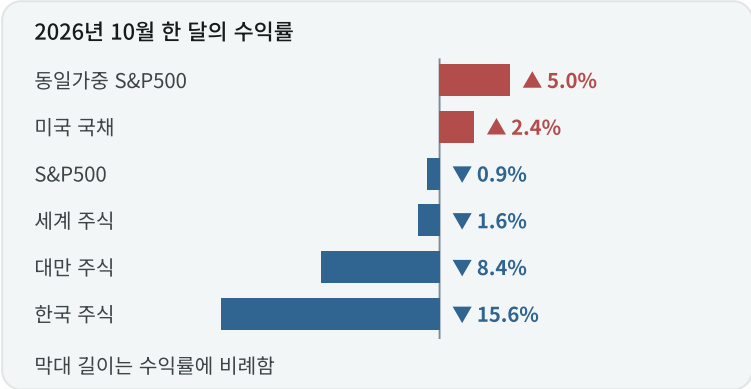


그림 8. 출처는 JP모건 자산운용 월간 시장 리뷰(2026년 10월). 지수마다 통화 기준이 다름.

S&P500은 0.9% 내렸는데 동일가중 S&P500은 5.0% 올랐습니다. 보통의 지수는 큰 회사일수록 비중이 큽니다. 동일가중은 500개 회사를 같은 비중으로 담습니다. 몇몇 큰 회사가 내리고 나머지가 오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10.4%, 알파벳 18.7%, 메타 15.2%가 내렸습니다. 리뷰는 AI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아팠습니다. 리뷰가 집계한 한국 주식은 15.6%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코스피는 9월 말 6,838.04에서 10월 말 5,730.74로 16.2% 내렸습니다(직접 계산). 한국은행이 성장률 3.3%의 근거로 든 것이 반도체 호황이었습니다. 같은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 업종에 기대는 구조의 양면입니다.

미국 국채의 한 달 투자 수익률은 2.4%였습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이 버텨 준 달입니다. 다만 한 달입니다. 10년 전망을 한 달의 결과로 채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던 쪽의 걱정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09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여덟 목소리를 모으면 확인할 것이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AI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물가가 내려오는지, 주식이 채권보다 얼마나 더 주는지입니다. 각각 기업의 이익률, 근원물가의 월간 상승률, 주식의 이익수익률과 국채 금리의 간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9. 전망을 내는 곳들이 숫자를 고치는 일정. 일정은 바뀔 수 있음.

전망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은 석 달 만에 3.6%에서 4.1%가 됐습니다. JP모건의 미국 주식 가정은 1년 만에 6.7%에서 7.5%가 됐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어느 쪽으로 고쳐지는지가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10

전망 보고서를 읽을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내년 전망 상향」이라는 제목을 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 전망은 몇 년을 보는가?"**
   → JP모건 자산운용은 10~15년, 골드만삭스는 1년, 연준은 다음 회의를 봅니다. 기간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도 모순이 아닙니다.

2. **"말하는 곳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 운용사는 수익을 찾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지키고, IMF는 위험을 알립니다. 입장은 맡은 일을 따라갑니다.

3. **"결론을 받치는 가정은 무엇인가?"**
   → JP모건은 15%가 넘는 이익률, 골드만삭스는 이익 10.7% 증가, 연준은 내년 물가 2.3%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결론도 흔들립니다.

4. **"다른 곳은 같은 숫자를 얼마로 보는가?"**
   → 미국 주식 10년 수익률은 JP모건 7.5%, 뱅가드 4.8~6.8%입니다. 1,000만 원이 10년 뒤 304만 원 차이 납니다.

5. **"말과 행동이 같은가?"**
   → 연준은 금리를 올렸고, 버크셔는 현금 3,523억 달러를 쥐고 있으며, 빅테크는 투자를 늘렸습니다. 돈과 금리가 가장 정직한 의견입니다.

6. **"지난번 전망은 얼마였는가?"**
   → JP모건의 채권 가정은 2021년 2.1%에서 5.3%가 됐고,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은 석 달 만에 0.5%p 올랐습니다. 전망은 늘 고쳐집니다.

이처럼 JP모건이 낙관하고, 연준이 조이고, 버크셔가 현금을 쥔 것은 누군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보는 기간과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정답을 고르는 자료가 아니라 내 질문을 고르는 자료로 읽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전망 하나를 골라 「몇 년을 보는가」와 「지난번에는 얼마였는가」 두 가지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J.P. Morgan Asset Management, 2027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보도자료(2026.10.19): 60/40 7.0%, 미국 대형주 7.5%(작년 6.7%), 글로벌 주식 7.5%(작년 7.0%), 신흥국 주식 7.1%, 글로벌 채권 5.3%, 금 5.5%, 총요소생산성과 미국 성장률 가정. 보도자료는 이 가정이 미래 성과의 약속이나 보장이 아니라고 밝힘
- J.P. Morgan Asset Management, Monthly Market Review: Review of markets over October 2026: 세계 주식, 동일가중 S&P500, 개별 종목과 업종, 한국·대만, 국채 수익률
- 미국 연준, FOMC 성명과 경제전망 요약(2026.9.16), 의장 기자회견 기록(2026.9.16, 2026.10.28)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6년 8월) 보도자료(2026.8.27),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기준금리와 코스피
- Vanguard,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2026.9.30 기준 Vanguard Capital Markets Model): 미국 주식 4.8~6.8%, 미국 채권 5.1~6.1%
- Berkshire Hathaway, 2026년 3분기 보고서(10-Q)와 보도자료(2026.11.7): 현금·단기국채, 투자 자산, 주식 매입·매도, 기업 인수, 자사주 매입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10.13) 요약: 세계 성장률과 물가 전망, 위험 요인. 세부 내용은 보도를 함께 참고함
- 보도: 골드만삭스 2027년 전망(S&P500 8,700, 주당순이익 375달러와 415달러), AP(2026.10.13, 제이미 다이먼의 실적 발표문). 보도에만 있는 내용은 본문에 보도라고 밝힘
-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2026.11.13): 10년물 5.15%, 3개월물 4.32%
- 증가율, 차이, 범위의 가운데 값, 복리 계산, 이자 추정은 위 자료로 직접 계산한 값. 1,000만 원 복리 계산은 설명용 가상 예시

분류·태그 경제 전망·정책 #AI #JP모건 #S&P500 #경제 전망 #기대수익률 #연준 #자산배분 #해외투자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6-outlook-2027-views.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